

表 4

轉職理由

	연 령			학 력			직 력			계
	26 이 세 상	25 이 세 하	미 상	고 이 총 상	고 이 퇴 하	미 상	초 직	경 직	미 상	
1 임금이 너무 적어서	22%	26%	57%	23%	34%	21%	30%	23%	22%	25%
2 자기 발전을 할 수 없어서	25%	25%	16%	25%	23%	24%	21%	26%	28%	25%
3 장래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23%	20%		19%	24%	22%	24%	20%	15%	20%
4 일자체가 흥미가 없어	6%	10%	9%	10%	2%	6%	5%	8%	13%	8%
5 감독자와 맞지 않아	8%	8%	9%	8%	5%	12%	9%	8%	5%	8%
6 회사측에 불만이 있어	9%	4%		7%	5%	7%	6%	7%	9%	7%
7 작업 조건이 나빠서	6%	5%		6%	5%	7%	5%	6%	6%	5%
8 동료와 맞지 않아	1%	2%	9%	2%	2%	1%		2%	1%	2%
사례 수	356	297	32	468	128	89	211	320	154	685※

※ 表 3 과 同一

三五

職場價值觀（第一選擇）

	연 령			교 육			직 위			만 족 도		
	26 세 이 이	25 세 상 미	계	고 이 이	중 상 퇴 하	계	직 장	직 공	계	만 족	불 만	계
1 총 성 심	25%	22%	24%	22%	29%	24%	25%	22%	23%	42%	24%	32%
2 연 구 심	14%	16%	15%	12%	26%	15%	17%	15%	15%	5%	12%	.9%
3 순 종 심	20%	28%	23%	23%	31%	25%	26%	24%	25%	20%	32%	27%
4 창 의 성	19%	11%	13%	13%	3%	10%	15%	13%	14%	13%	8%	10%
5 적 극 성	22%	30%	25%	30%	11%	26%	17%	26%	23%	20%	24%	22%
사례 수	168	125	293	211	70	822	72	164	236	40	51	91

(第二選擇)

	연 령				교 육				직 위				만 족 도		
	26 이 이	세 상	25 이 하	계	고 이	줄 상	고 이	퇴 하	계	직 장	직 공	계	만 족	불 만	계
1 총 성 심	13%	27%	20%	17%	21%	18%	27%	19%	21%	14%	29%	22%			
2 연 구 심	25%	15%	21%	20%	24%	21%	21%	22%	22%	34%	4%	18%			
3 순 종 심	13%	20%	13%	19%	15%	17%	25%	14%	18%	20%	22%	21%			
4 창 의 성	26%	14%	21%	21%	15%	19%	17%	20%	19%	20%	18%	19%			
5 적 극 성	23%	24%	25%	23%	25%	25%	10%	25%	20%	12%	27%	20%			
사 례 수	178	120	244	190	67	257	52	145	197	35	45	89			

Rorschach 反應內容分析에 依한 不安神經 症患者와 神經症의 憂鬱症患者의 比較

申 東 均

友石大學校 醫科大學 神經精神科

純粹한 Freud 의 精神分析學 的 概念에 立脚한 Holt 와 Havel (1960)의 Rorschach 反應 内容評價方法을 使用하여 無意識的 自我機能과 内的 慾動의 形體나 深層의 力動性을 紛明하는 試圖로서 우선 臨床에서 흔히 볼수 있는 不安神經症患者와 神經症의 憂鬱症患者를 選定하여 兩群間의 力動性을 比較하였다. 이 두群은 廣義로 다같은 精神障礙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하나 臨床的인 現象에 있어서 不安神經症은 不安을 中心으로 나타내며 憂鬱症은 不安에 對한 削極的으로 試圖된 心理學的 防禦及 不安과 蔓藤의 間接的인 表現이며 最終的인 結果로서의 重要한 心理學的 轉換의 結果인 精神內的으로 發生된 表現이라는 差異가 있다고 定義내린 많은 學者들의 (Martmm 1964, Laughlin 1967)共通的인 意見에 根據하여 兩者的 差異을 檢討하였다.

對象은 友石大學校醫科大學附屬病院 神經精神科에서 治療觀察한 患者中 表 1 과 같다.

Holt 와 Havel 的 評價方法을 適用하여 反應內容變因 (Content Variables)과 反應形態變因 (Formal variables)으로 나누었다. 反應內容變因들은 反應內容中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이 가장 뚜렷한 決定因子의 役割을 했던 反應만을 選定하여 原始的 思考過程에 依한 表出 (Primary process thinking production)과 二次的 思考過程에 依한 表出 (Secondary process thinking production)으로 나누었다.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反應을 細分하여 色情的 目標 (Libidinal Aims)와 攻擊的 目標 (Aggressive Aims)에 動機를 分する 反應과 慾動表現에 隨伴하는 不安感 (Anxiety)과 罪惡感 (guilt)으로 나누고, 다시 色情的 目標에 動機를 分する 反應을 6個의 面, 即 口唇性 (Oral), 肛門性 (Anal), 性的 (Sexual), 露出的 (Exhibitionistic-voyeuristic), 同性愛的 (Homo-sexual=Sexual ambiguity) 및 其他 色情的 等으로 각각 나누었고, 攻擊的 目標에 動機를 分する 反應을 5個의 面, 即 潛在的으로 攻擊者가 自己 (Potential-Subject), 潛在的으로 攻擊者가 他人 (Potential-Object), 實在的인 攻擊者가 自己 (Active-Subject), 實在的인 攻擊者가

他人 (Active-Object) 및 攻擊의 結果 (Result of Aggression Object)等으로 각각 細分하였다.

다음 反應 形態變因들은 反應內容中 反應構成에 歪曲이 뚜렷한 反應만을 選定하여 이것 亦是 原始的 思考過程에 依한 表出과 二次的 思考過程에 依한 表出로 나누고 다시 8個의 面, 即 凝縮 (Condensational-Image fusion) 色과 形에 對한 獨斷的인 聯合 (Arbitrary combination of colour and form), 抽象的인 視覺的 表現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abstract), 矛盾性 (Contradiction), 言語的 表現上의 歪曲 (Deviant verbalization), 自己關聯 (Self-reference), 內閉的 要素 (Autistic element) 및 其他 構成面의 歪曲等으로 각각 細分하여 分析 評價하였다.

各群의 平均反應數는 表 2 와 같고 反應總和에 對한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反應數와 百分率은 表 3 과 같다. 慾動에 依한 反應內容의 傾向은 表 4 에 提示되었다. 各群의 反應總和에 對한 反應構成이 歪曲된 反應數는 表 5 와 같으며 그 歪曲된 反應內容의 傾向은 表 6 에 整理되었다.

이 結果에서는 平均反應數나 慾動의 힘에 對해서는 兩群間에 意義 있는 差異가 없으며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反應內容에 있어서도 大部分 兩群에 意義 있는 差가 없지만 攻擊者의 位置에 있어서 不安神經症患者群이 攻擊者가 自己인 傾向이 있고 反對로 神經症의 憂鬱症患者群이 攻擊者가 他人인 傾向이 있다. (P_S+A_S 와 P_O+A_O+R 에 對한 兩群間의 $\chi^2=4.30$, $p<0.05$).

反應總和에 對한 反應構成에서 歪曲된 反應數는 兩群에서 差異가 없으며 그 歪曲內容에서는 神經症의 憂鬱症患者群이 色과 形에 對한 獨斷的 聯合 (Arbitrary combination of colour and form)이 強하고 ($\chi^2=24.85$, $p<0.001$) 不安神經症患者群에서 抽象的인 視覺的 表現으로의 歪曲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abstract)의 傾向이 強하였다. ($\chi^2=8.47$, $p<0.001$)

參 考 文 獻

Robert. R. Holt and Havel: Method for assessing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 in the Rorschach. In

Ed. by Richers-Ovsianikina.(Ed.), *Rorschach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0.

H. Hartman: *The theory of the ego in essays on ego psycholog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1964.

Henry P. Laughlin: *The Neuroses*. pp. 81~225.
Mahony & Roese Inc., Washington 1967.

表2 各群의 反應數의 範圍와 平均反應數

群	患者數	反應數의 範圍	平均反應數	標準偏差
A-R	99	4~51	19.8	8.51
D-R	59	4~50	18.5	7.81

表3 各群의 全體反應數中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反應數 與 그 思考表出過程의 分布

表1 各群의 男女別 患者數와 年齡

群	患 者 數		年 齡		
	男	女	計	範圍	平均年齡
A-R ¹⁾	32	67	99	17~55	36.3
D-R ²⁾	22	37	59	18~53	37.6

* 1) A-R……不安神經症

2) D-R……神經症의 憂鬱症

* 1) Level 1…Primary process thinking production.

2) Level 2…Secondary process thinking production.

* (百分率은 각群의 反應數 總和에 對한것)

表4 各群의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 反應內容의 傾向

反 應 內 容	Level 1		Level 2		計	
	A-R	D-R	A-R	D-R	A-R	D-R
Drives with Libidinal Aims	O ¹⁾	23(5.9)%	5(2.5)%	18(5.0)%	12(5.9)%	41(10.9)%
	A ²⁾	8(2.2)	3(1.5)	2(0.6)	2(0.9)	10(2.6)
	S ³⁾	51(13.9)	16(7.8)	2(0.6)	5(2.5)	53(14.5)
	E-V ⁴⁾	6(1.6)	3(1.5)	10(2.7)	6(2.9)	16(4.3)
	H ⁵⁾		3(1.5)	2(0.6)		2(0.6)
	M ⁶⁾	5(1.3)	9(4.3)	12(3.3)	1(0.5)	17(4.6)
計		93(24.9)	39(19.1)	46(12.3)	26(12.7)	139(37.2)
Drives with Aggressive Aims	P-S ⁷⁾			2(0.6)	2(0.9)	2(0.6)
	P-O ⁸⁾			10(2.7)	7(3.5)	10(2.7)
	A-S ⁹⁾			46(12.3)	16(7.9)	46(12.3)
	A-O ¹⁰⁾			10(2.7)	11(5.4)	10(2.7)
	R ¹¹⁾			72(10.2)	40(17.6)	72(10.2)
計				140(37.4)	76(37.3)	140(37.4)
Anxiety and guilt about drive expression				95(25.4)	63(30.9)	75(25.4)
總 計		93(24.9)	39(19.1)	281(75.1)	165(80.9)	374(100)
						204(100)

(* 百分率은 각群의 慾動에 依한 思考表出反應數總和에 對한것)

* 1) O…Oral, 2) A…Anal, 3) S…Sexual, 4) E-V…Exhibitionistic voyeuristic

5) H…Homosexual(Sexual ambiguity), 6) M…Miscellaneous 7) P-S…Potential-Subject,

8) P-O…Potential-Object, 9) A-S…Active-Subject, 10) A-O…Active-Object,

11) R…Result of Aggression.

表 5 各群의 全體反應數中 反應構成에서 弯曲된 反應數

群		A-R		D-R	
總 和		1977		1094	
歪 曲 值 反 應 數	Level 1	105	(5.3%)	52	(4.7%)
	Level 2	114	(5.8%)	103	(9.4%)
	計	219	(11.1%)	155	(14.4%)

表 6 各群의 反應構成에서 弯曲된 反應內容

	Level 1		Level 2		計	
	A-R	D-R	A-R	D-R	A-R	D-R
Condensation(Image fusion)	22(10.0)%	9 (5.8%)	18 (8.2%)	9 (5.8%)	40(18.2)%	18(11.6%)
Arbitrary combination of colour and form	5 (2.3)	12 (7.2)	79(36.1)	88(56.8)	84(38.4)	100(64.5)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abstract.	31(14.2)	8 (5.2)	13 (5.9)	6 (3.8)	44(20.1)	14 (9.0)
Contradiction	24(10.9)	10 (6.5)			24(10.9)	10 (6.5)
Deviant verbalization	8 (3.6)	2 (1.3)	3 (1.3)		11 (4.9)	2 (1.3)
Autistic element			1 (0.4)		1 (0.4)	
Self-reference	15 (6.8)	11 (7.1)			15 (6.8)	11 (7.1)
Miscellaneous formal aspect.						
計	105(47.9)	52(33.c)	114(52.1)	103(66.4)	219(100)	155(100)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

張 東 煥

成均館大學校 心理學科

Osgood의 意味微分法에 依해서 우리말의 意味論的 構造를 認히기 위해서 우리말의 形容詞가 分析되었다. 意味上의 包括性과 使用頻度를 考慮해서 選定된 形容詞群에서 50개의 semantic differential scale이 用어지고, 이들에 依해서 100개의 概念이 評定되었다. 被驗者로서는 200名의 男女大學生이 使用되었으며 각각의 被驗者は 100個의 概念中 5個만을 評定하였다.

50個의 形容詞尺度間에서 用어진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가 Thurstone의 centroid method에 依해서 因子分析되고, 抽出된 6個의 centroid factor(全體分散의 65.6%)를 Kaiser의 varimax criterion에 依해서 回轉하여 그中 4個因子(全分散의 57.5%)를 解釋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韓國語의 意味空間은 그 大部分(57.5%)이 評價(30.2%), 力能(13.4%), 活動性(7.0%), 精神的一思辨的 評

價(6.9%)의 네 因子에 依해서 構成되고 있다.

2. 韓國語의 意味空間은 그 主要 三因子에 關한 諸外國語의 그것과 類似하다.

3.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a. 評價的 因子에서는 道德的 評價가 優位하게 나타나고 있어 日本語나 西歐語에 比하여 韓國語의 評價는 道德的인 比重을 非常 많이 차지하고 있다.

b. 精神的-思辨的 評價因子는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特有한 因子이며 韓國 사람들의 精神的-思辨的 價值重視의 思考方式을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本資料는 1962年度 成均館大學校 教授特別研究費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同大學校 論文集 第九輯 p. 191 ~206. (1964)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關한 研究”的一部이다. 本資料에 關한 詳細한 點은 同論文을 參照하기 바란다.